

어. 93년도 1, 2월달에 받았을 거야. 보현이 아줌마(사건 당시 옆집에 살던 아줌마)랑. 내가 옷을 벗고 욕상에 눈발에 앉아 있고 하니까, 그 양반이 데리고 가서 ... 약을 3-4개월 먹었을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 주로 약 먹고 의사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지 ... 속에 있는 얘기 다 했지 ... 잠을 자게 하고 편해지는 약을 먹었어. 혈압약도 먹고. 약을 몇 가지를 먹어. 안정제는 여기(사건 당시 광주 거주, 현재는 성남 거주)와 가지고도 많이 먹었어. 잠 못 자고 그러니까. ... 지금도 기억력도 없고 정신도 멍해. 그 당시는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집에서 내릴 줄을 몰라. 그렇게 살아왔지. 혼자 차를 못타. 어디서 내렸다는 걸 몰라. 가다보면 송정리까지 가 있고.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살아지더라. 광주 계림동에서 망월동까지 걸어서 두 시간 걸린다. 밤에 걸어서 간다. 갈 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간 거야. ... 자궁적출술은 98년도인가 99년도에 받았어. 그 수술 때문에 법제정 캠페인에 얼마 나가지도 못했거든. 유방근종도 ... 의사가 “무슨 신경을 그렇게 쓰냐”고 하더라 ... 지금도 신경안정제는 먹고. 가끔 한번씩 퍼뜩퍼뜩 할 때 벌렁벌렁할 때 한 번씩 못 참아. 먹어줘야 해(문승필의 어머니).

<정신과 치료, 위염>

애 그렇게 (행방불명) 되고 나서 5년만에 왔나? 추석 때 설 때 (친구들이)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 마음이 어때 ...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명예회복 서류 준비하고 나서 어머니가 병나셨지. 친구들이 오면 눈물부터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생각나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부모님 생각나시면 마음 아플까봐. 부모님은 자식 생각해서 마음 아플까봐. 병원에 가도 저쪽에서 접수하고 그러더라구 ... 그러구 나서 병났어. 오지 말게 해야할 것 그랬지. 방안에만 있으면서 거의 식사도 안 하시고. 거실에도 안 나오시더라구요 ... 그래서 내가 죽 끓여 드리구 그랬죠. ... 한 1년 고생하셨지요 ...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고 말았지 ... 자식들 마음 아플까봐 이야기도 못했지 ... 친척들 만나도 이야기 못하지. ...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태순이 이야기는 안 했어. “엄마 가서 태순이 이야기 좀 해” 그렇게 이야기 못해요. 병원에서도 멀쩡한 사람이 계속 죽만 먹으면 간다고 했었는데 ...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약 타다가 먹고 있어. ...

(위원회에서) 발표나고 나서 음식을 못 먹어요. 몇 달 병원 다니고 ... 식도 뭐라고 했는데 병명이 기억나지 않는데 미란성 위염 걸리고 한참 치료했어요. 조금만 먹어도 다 넘어와서 ... (박태순의 누나).

<장애 악화, 정신병>

우리 큰아들은 다리가 좀 불편해요. 장애자예요. 거기다가 그 때 당시 두들겨 맞어 가지고. 절룩절룩 심해졌어요. ... 우리 막내아들은 형하고 부둥켜안고 자고 그랬는데, 형이 그렇게 되고 나서 멍하니 정상이 아니게 되어 부렀어. 혼자 가서 형 보고 싶다고 묘지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근디 나는 내가 볼 때요. 막내아들이 사건 이후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은 막내아들이 집에 안들어 왔는데, 형 보고 싶어서 묘지에 갔었나 봐요. 아침에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가 어딘디 자고 있냐”고 그래서 깨웠다고 ... 묘지에서 울다가 그러다 잠이 들었는 감서요. 내가 제일 걱정인 것은 우리 막내아들이예요. 큰형은 잠을 못 이룬데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데요. 한 잔이라도 마셔야제. 살아서도 지그 동생을 무척 아끼고, 영안실에 있을 때 냉장고에 얼음을 넣어주면서 시체를 어루만졌데요. “동생아, 내가 니 한을 풀어줄란다” 그러고 울고 그랬데요. 동생 시체가 썩을까봐 항상 확인하고 ... 그리고 동생 부검한 것을 봐놔서 그것이 너무 생생해서 술 한 잔 안 마시면 잠을 이룰 수가 없데요(이덕인의 어머니).

<심장병, 수면 장애>

아내는 반송장 되어버렸지. 나는 정신차리고 해야되지 않겠나, 각오를 하고 이렇게 했지. ... 농사일은 아내는 못해. 그 이후로는 못해. 손자 데려다가 손자 낙으로 살게 했지. 담배를 많이 피웠어. 지금까지 약(수면제)을 먹어. 잠을 못 자니까. 5년 동안 수면제를 갖고 다녀. 뜯눈으로 날을 새불고 ... 즈이 어머니는 나보고 난리지. 정신과는 안 가봤지. 아내는 사건 이후부터 심장병 약 먹지(김준배의 아버지).

(2) 정신적 피해

유족들에게 가해진 정신적 피해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여기서는 그 정신적 피해를 죄책감, 상실감과 박탈감·좌절, 불안과 공포, 악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수준은 비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었으나 유족들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① 죄책감

유족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깔려있다. 즉 자신들이 다르게 처신했더라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죄책감은 계속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킨 것, '그 시기'에 군대에 보낸 것, '그 대학'에 보낸 것, 안색이 안 좋은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부모인 자신이 무식한 것'까지 도달한다. 이 죄책감 속에서 최우혁 어머니는 한강에 투신 자살했고, 이이동의 형은 술을 먹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서울대에 보냈더라면...>

죽은 놈의 새끼도 서울대를 제가 가라 그랬어요. 형 떨어주겠다고, 그 당시에 4년 장학생이면 한 달에 20만원씩 나와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겨서라도 서울대에 보냈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죽지는 않았겠죠(한영현의 형).

<어두운 얼굴을 눈치챘더라면..., 내가 좀더 배웠더라면...>

바보 같은 엄마가 눈치도 못 챘지 ... 자라나면서 문제도 없었고, 돈으로가 아니라 맘적으로 도와주는 안테. 아가 실종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지 아가 얼굴이 안 좋고 집에도 자주 오고 그랬는데(그렇게 마음 고생한 걸 몰랐다니) ... 아가 실종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지. 내가 후회가 되는 거는 아가 얼굴이 안 좋으면 아가, 왜 그

러나 묻고 그랬어야 했는데 ... 나는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갔고 ... 쓰는 것도 모르고 ... 길쌈이나 하고 베나 짜고 ... 내가 너무 못 배웠구나 ... 내가 너무 모르니까 자식이며 할머니며 성하지 않고 하니까, 어용노조, 민주노조 사이에서 내 아들을 ... 나를 깔보고 아들을 죽였구나 ... 돈이나 몇 푼 주면 눈물 절금절금 흘리고 말 줄 알고 ... (정경식의 어머니).

<군대를 안 보냈더라면 ...>

군대를 안 보냈으면 살지 않았을까 ... 누나나 오빠는 죄책감에서 살아요. 그 운명을 피했으면 살았을 텐데 ... 라는 생각에 ... 오빠는 마음을 추수릴 수 없어서 동생 말만 들으면 폭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화를 낸다는 거예요(이이동의 누나).

지난 4년 동안 군복무 중 의문사한 아들 최우혁(당시 21살)씨 죽음의 진상을 밝혀줬다며 거리를 헤매던 ... 어머니가 한강에 빠져 숨진 사실이 ... 밝혀졌다. ... 경찰은 숨진 강씨가 ... 집을 나갈 때 지니고 있던 10만원이 그대로 있는 점과 평소 아들의 죽음을 몹시 비관해 왔다는 가족의 진술에 따라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사단에서 의문사한 최우혁 씨의 어머니인 강씨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얻은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의문사 진상규명대회나 민주화시위 등에 앞장서왔다. ... 강씨의 둘째아들 인휴(31·회사원)씨는 "우혁이가 의문사한 뒤 어머니가 '학생운동을 하지 못하게 군에 보냈더니 이렇게 죽다니 ... 이게 다 내 탓'이라고 늘 괴로워하셨는데 ..."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최우혁 가족의 사례)¹⁸⁾

② 상실감과 박탈감 및 절망감

가족의 죽음을 맞은 후 유족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는데, 주로 의문사한 가족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을 본다거나 비슷한 상황을 접하는 경우 심하게 드

18) 『한겨레신문』, 1991년 3월 7일

러난다. 그리고 유족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관적 예견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나한테는 평생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며 자신의 불우한 인생을 책망하며,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좌절감>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죠. 왜 그냐면 가족들은 꿈이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좌절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지요.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꿈이 다 깨지는 거예요. 전부다. 정식으로 부모가 있어 가지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꿈의 나래를 펼 수도 있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김창수의 아들).

가꿈은 나도 남들처럼 ... 아무 일 없는 가정에서 살았다면 이런 생각을 머리 속에서 안 해도 되겠죠. 유족 분들은 행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마냥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 내 자식 낳았다고 좋아했지만 애도 남자애라서 군대를 갈 텐데 ... 그런 식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이이동의 누나).

<상실감>

종원이 사고 나고 그랬을 때 3년까지 하루에 담배를 낮에 3갑씩 피웠거든요. 서울 친구들도 알아 가지고 “담배 좀 그만 피우라”고. 잠이 안 오죠, 밤새도 잠이 안 오죠. 시간을 못 보내죠. 병원에 갈라고 택시 타고, 하도 답답해서 어데 갈라고 택시 타고. 택시 타고 “저기까지 가자”고 하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 입으로 저기 횡하고 가자는 사람도 있고. 밤에 대구에서는 돈 만 원어치 택시 타고 열매나, 돈 만 원어치 택시 타고 돌아 땡기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속히 안 풀리더라고요. 집에서 이래 갔다오면 속히 편하지 싶은데도. 그래도 서울 온다카면 이래 기분이 좋아지고. 그 자식죽은 이야기는 당해본 사람이야 알지 이야기 듣고서는 대통령이나 천하 사람들이라도 이야기 듣고는 이해 못합니다. ... 담배 안 피우면 맨날 “휴~” 해야하

는데 어떻게 합니까 ... 제일 마음 아픈 게 자식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밤으로 비계가 다 젖도록 울어도. 처음에는 악이 올라 눈물도 안 나더라니까요. 요 눈만 새파래지거든요. 병원 가서 물어보니 많이 울면 그런답니다. 많이 울면 그런다는 기 맞기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담배를 피와도 비란다에 가만히 가서 피와도 ... 안 되는 일 생기고 그러는 “나한테는 평생 안 좋은 일만 생긴다” 그리고 ... 술을 배와 볼라꼬 술을 한 병 가지고와 한 번 마셔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먹으면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다 카더니, 술 한 잔 먹고 나니 이 눈물이 나오더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술을 안 되겠다, 있는 가족도 못 살겠다 그러가지고 술을 안 먹어요. 내가 술을 먹으면 가족들이 좋겠어요? 술을 한 잔 먹으면 왜 그리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 몬해준 것만 생각이 나고(우중원의 어머니).

동네 젊은 친구들이 자주 왔거든요. 근데 고향친구들이 오는 것도 어머니는 싫어 했어요. 자꾸 생각나고 ... 그러니까 ... “가라”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 그 친구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 재호가 생각나니까 “가라”고 ... (이재호의 처남).

승필이 있었을 때는 외로움이 뭔지, 승필이랑 재밌게 살았는데 승필이가 그러고 나서 산다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승필이가 없으니까. ... 멍해가지고 ... 지금도 그래 ... 멍하고 멍충이가 된 거지 ... 그 생각만 하면 멍해가지고 ...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 뭘 봐도 재미가 없고 ... 의욕이 없어. 뭣 때문에 사는가, 의욕이 없지 ... 지금은 서류 내놓고, 명예회복, 진상규명 기대를 걸었는데 ... 이게 잘 안되니까 ... (문승필의 어머니).

<상실감, 좌절>

전에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죽어야 애들 고생 안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내 죽고 나면 알게 뭐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버님이 어제 살든 말든 막 내 위주로 나가는 거야.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서 신경도 못하고 그러는데 나는 정신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서 힘들어 죽겠어. 병원에 입

원할 사람은 나아. 내가 아들한테 “나 병원에 입원이라도 좀 시켜 줘. 나 이러다가 못살겠어” 했어.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겠으니까. 처음에는 애절하고 가슴이 찡찡 해서 죽을 지경인데 너무 가정이 어렵게 되고 하니깐 거기서부터 고생하고 엉망진창하고 하니깐 10년이 넘으니까 미운 정이 들어. 대학공부하라고 보내놓으니까 나를 길거리로 내어 몰다니 ... 개 죽고 나서는 길거리로 돌아 다녔잖아. 패섬해서 벌초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벌초하러 가제. 그래서 무덤에 가서 아들한테 털어놨어. “용재(김용권의 동생)야, 내 마음을 못 다스리겠다. 살인을 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내가 명대로 못살 것 같애. 신경과 약을 먹으면 사람이 등신이 돼 먹으면 잠만 자고 멍해지고 손이 덜덜 떨리고” ... (이후 아들의 권유로 성당을 다니게 됨)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그나마 마음이 수그러져. 그냥 빈 수레처럼 살자. 하지만 잠깐이야. 살림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 죽는 게 제일 정답이야. 내가 안 괴로우려면 죽는 게 최고다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가. 죽어야만 걱정을 안 할 텐데. 도저히 나를 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 유족들은 만나면 좋은데, 형제간도 만나기도 싫어. 고만하고 산 놈들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소리가 비상을 들려. “너도 니 새끼 한번 죽어봐라. 미쳐가 돌아다니지. 그래야 마음을 안다” 막 해버린다. 정답은 내가 죽는 일이다. 마음대로 용권이 일 안 되면(김용권의 어머니).

③ 불안과 공포

유족들은 의문사 사건의 충격으로, 사건 발생 당시 관계기관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여진 방식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겪기도 하였다. 가정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희생될 수 있다는, 사건 발생 당시처럼 관계기관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족들은 개인적인 모임에 나가는 것에도 불안함을 느끼는 생활을 십 수년동안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희생에 대한 공포>

굉장히 무서웠죠, 그때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신적인 존재같이 느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가 무고한 사람을 희생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밑에 있는 동생들은 막 겁에 질려 갖고 있고. 사람들이 오면 누가 막 미행하는 것 같고. 우리 남동생은 정신이 안 좋으면 누가 미행한다고 그래요(김창수의 아들).

100일 추모제 이후 내가 보안사령부를 한번 찾아가려고 했었지. 그러구 있는데, 손님이 왔어. 보니까 헌병대장이야. 그 사람이 집을 찾아 들어왔더라고. 안내역으로 성남 사는 사병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 차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차안에 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시끄럽냐” 그러더라고. 그때 각 학교에서 대자보 붙고 그랬으니까. 서울대에서도 학생들이 모이고. 여기저기서 예배, 미사 드리지. 자꾸 그러니까 보안사에서 복잡해 했나 봐. 나는 “시끄러운 거야 자연발생적이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나도 좀 이상하다 희철이가 왜 죽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고 자기랑 보안사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보안부대장이었던 거야. 이동하는 차내에서 나도 과거에 헌병대에 근무했으니까 헌병부대장하고 이러 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 그런데 어느 틈에 갑자기 대화를 안 받아주고 조용해진 거야. 겁이 벌컥 나더라고 나도 어디로 끌려가 죽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지.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안전하게 해주라고. 영동 호텔로 데려가더라고. 구석방에 원탁테이블이 있고 “거기 앉으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하나 들썩 모여 앉더라고. 내가 조사기록을 좀 보여주라고 했지. 조사기록이 너무 많더라고. 대충 볼 수밖에 없었지(한희철의 아버지).

<감시에 대한 공포>

아버지를 잃은 슬픔 외에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으로 둔갑시켜 발표하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했다는 사실을—어린 자녀들

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미망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언론보도나 주변의 따가운 시선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린다. 구체적 이유가 없는 불안감과 공포 …(최종길의 아들).

그 당시 장미아파트 성내동에 살았는데 구조가 각 통로마다 경비가 있었는데 모르는 머리 짧은 사람이 항상 있었는데 보안부대에서 나온 사람이겠거니, 도청은 당연히 하겠거니 했어요. 둘째 동서는 “자기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있었다”고 … 하지만 주관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것인지 확인은 안되고 … 심리상 위축됐지, 보안부대에서 이걸 관리하는구나 그래서 조심스러웠지 …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볼 수 있다 … 자유스럽게 지내는 거하고 어디선가 사적인 모임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공안의 의미로 감시한다 이런 느낌은 좋은 게 아니야(이운성의 매형).

<직장생활에서의 불안>

그 당시에는 ‘위장취업’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이런 걸 좋게 이야기할만한 처지가 못했죠. 데모한다던가 노조 설립한다는 문제는 회사측에서 좋게 안 봤을 때니까. 회사측에 얘기가 들어가면 짤릴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안 했죠. 같은 피가 흐르지 않느냐 뭐 이럴까봐.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장에서 일했으니까 의심을 받기도 했죠. 늘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살았어야했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특히나 오빠가 노조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이재호의 여동생).

④ 악몽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족들은 오랫동안 의문사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는 꿈에 시달렸다. 특히 부검현장을 지켜봤던 유족들의 경우 그 고통은 더욱 심하였다.

<악몽>

당시 8살이었던 딸 희정은 부친의 사망을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토록 다

정하고 건강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딸 희정은 그 후 오랫동안 부친을 꿈속에서 만나며 그리워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최종길의 아들).

항상 정기적으로 오빠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1-2년 정도는 꿈에 맨 날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 나는 서울에 있고 오빠는 인천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만났거든요. 1년 반정도 꿈에서 시달렸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내가 편할려고 … 포기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 될 수 있으면 생각 안 하려고. 사진 같은 걸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되도록 안 봤죠. 가족끼리 찍은 사진 한 두 장 있거든요. 어렸을 때 찍은 것 … 되도록 안보고 … (이재호의 여동생).

<악몽 · 환각 · 환청>

형이 죽고 나서는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 환각에 시달려 가지고. 환청도 들리고. 집사람이 알텐데 저녁에는 있다가도 식은땀 흘리고. 근데 저녁에 잠을 청하면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도대체 이게 잊혀져요? 밤이면 꿈을 꾸다가 잠을 못 자고 해매는 거야. 이런 상태를 보고, 해부한 것까지 다 보니까(김상원의 동생).

(3) 병을 얻어 사망까지 이름

위와 같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지속은 유족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

혈압이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사건 3~4개월이 지나서야 알렸고, 사실을 안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죠(김창수의 아들).

어머니는 두황이가 죽은 후에 하루도 잇고 사신 적이 없는 것 같다. 죽은 막내는

잊으시라고 손자들을 낳아 드렸건만 손자들 재물이 귀여워도 죽은 자식을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었나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라 그랬을까? 등산을 모르던 녀석이 대학 시절 어머니를 모시고 설악산에 다녀온 효자 아들이라 더욱 그랬을까? 유품을 정리하면서 여러 권에 나누어 쓰여진 어머니의 일기를 보면서 우리 형제는 모두 “어머니는 잘 돌아가셨다”라고 했다. 그렇게 보고 싶어 아픈 가슴으로 사시는 게 오히려 지옥이라고 생각한다(김두황의 형).

4) 가족, 친척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

의문사 사건의 발생은 낙인이라는 꼬리표를 통해 이웃과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겪게함과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 유족들이 과거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졌던 가족 내부의 관계와 친척의 그것을 변형시킨다.

(1) 가족의 재구성

이는 의문사로 한 가정의 장남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관찰되는 것으로, 장남의 부재로 그의 역할과 의무를 떠안아야 하는 차남이 겪는 고통이다. 특히 장남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이것이 주는 중압감이란 차남에게 있어 대단히 크며, 이로 인해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된 차남은 의식적으로 사망한 장남을 잊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차남이 장남 노릇을 해야 되니까 짐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님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이재호의 매형).

막내는 장남이 됐으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 심적으로 만나도 이야기 안 하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죠. 잊혀지는 게 아니니까 ... 동생은 아버지보고 제사 지내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박동학의 누나).

(2) 친척관계의 단절

유족들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친척들과 소원해졌거나 단절되었음을 인정한다. 그것의 원인은 다양한데 친척이 자신의 피해를 우려하여 유족들을 만나지 않는 경우(김창수 유족의 사례), 자신의 특수한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친척들과의 모임이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거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협력한 친척과의 관계를 끊은 경우가 있다. 결국 유족들은 자신의 친척들과도 고통을 나누지 못하게 된 것이다.

① 사건 처리과정에서 관계기관에 협조한 친척과의 단절

죽음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은 친척들을 통해 유족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에 관련된 친척들과 유족과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밀고한 큰아버지>

(영현이가 수배 중에 있을 때)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건설업을 했는데 경찰이고 안기부고 보안사고. (간섭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뭐 그걸 견디다 못해 (영현이가 있는 장소를) 밀고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니가 인간이냐” 그랬지만. 얼마나 못 견뎠으면 자기 숙질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려요(한영현의 형).

<사건처리에 도움주지 않았던 친척>

작은 아버지들이 많아요. 장인 어른 형제분들이 그 근방에 사시고 서울도 사시는 데 ... 나서가지고 하면 나왔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거리감이 있었거든 ... 검찰에도 같이 가긴 했지만 ... 검찰 측에서는 연락이 왔을 거예요. “물어볼 게 있으니까 와

봐라...” 그래도 안 가버렸으니까 ... 물론 자기도 굉장히 못 살았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 지금은 그런 게 좀 원망스러워요. 다 지난 일이니까 ... (이재호의 처남).

<사건처리에 무관심, 축소하려는 친척>

어머니(계모)는 이제 아버지(진상규명 노력하다 자살) 제사에도 안 오시고 발길을 끊으셨어요. 그 어머니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같이 부대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오셨더라고요. 조금만 고생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을 잃은 아버지 상황을 더 살기 벅찬 그런 것으로 느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또 고종 오빠는 경찰이었는데 “이 일을 확대시키지 말고 조용히 치러라”하는 거예요. “고종 오빠가 뭔데 왈가왈부 하나고 막 따졌어요.”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운구차를 검문했네요. 그리고 시골에 지시가 왔다는 거예요. “운구차가 가는데 동조하지 말라”고 ... 저는 지금도 친척집에 연락을 안 해요. 자식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가족장도 제대로 안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하고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이이동의 누나).

<국가기관과 관련된 친척>

준배 큰아버지랑 나는 사이가 이렇게 (손을 엇갈리며) 됐지. 큰아버지가 경찰인데 나도 모르게 준배가 운동한다고 미워했더라고요. 경찰생활 30년 했고 정보과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게 없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 광주에 있는 의사촌들이나 이 사람들은 교사출신이라 연락이 다 끊어졌지. 내가 연락을 안 해. 서운한 것은 형제간이라 말을 따듯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식을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야 ... 방송 나가는 것도 형이 안 봤으면 좋겠어 ... 경찰이니까 정보나 법에 의해서 잘 알 것인데 아무 것도 도와주는 게 없어서 엄청나게 서운하더라고요 ... 깊은 얘기 안 해버려 ... 거리감이 있지(김준배의 아버지).

② 친척과의 소원해진 관계

<멀어진 친척관계>

강제징집 당하고 나서 세 분(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만 계시니까 암울하고 쓸렁하고 고려장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서로 말 피하고 ... 따로 이사를 가시고 ... 연락 안 된다, 이민 갔다 ... 이상한 소문이 돌고 ... 차라리 그걸 바랬지 ... (이운성의 매형).

<잊을 것을 요구하는 친척>

“그만두라, 잊어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잊어버리겠는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밝혀내겠다. 누명을 밝혀주겠다” 했거든. 친척들이나 가족들하고 자주 못 만나고 서먹해지더라. 유족들 일에는 가는데 경사스런 친척들 일에는 가지만 그 외엔 안 간다. ... 다른 자녀들은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기네들도 가슴이 아프니까 문제지. 아들이 하나가 고3이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5등 안이었다. 성적이 떨어지더라, 15등까지 ... (허원근의 아버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척>

형제지간이나 자기 가족들도 별로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식구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식구를 잃어서 가슴이 아프겠지만 자기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데. 내 가족만 보더라도 나는 온통 세상 사는 게 이걸 위해서, 원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는데 다른 행복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즐거운 걸 본다고 해서 즐거움이 느껴지겠어요?(김상원의 동생)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척,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친척>

집안 가족들은 나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좋은 세월에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그리 죽었노”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할라면 우리집에 오지마소”. 그래서 집안행사에도 잘 안가고 가면 좀 답답하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소리 듣기 싫고 ... 내가 좀 빠듯하니까, 우리 가족이. 삼촌만 해도 안기부에서 전화가 오고 조사관들 가니까 잘 안 가르쳐준다 그래요. 그때도 압력 당하기는 삼촌이 많이 당했지. 아가 한참 공부해야되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깐. 학교 교사였거든요, 삼촌이. 그렇게 되면 아들 어떻게 될까 봐, 우리를 영 안 좋아해요. 경찰이 가족 묻는 거 싫어하고(우중원의 어머니).

<감시의 공포로 멀어진 친척>

경찰이 6개월을 진을 치고 있으니깐 친척들도 안 찾아와. 전화도 도청되고 하니까 무서워서 안 오는 거야. 나,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우리 유족(유가협)을 만나야 편안하지. 형제간 만나도 싫어(김용권의 어머니).

<서먹해진 가족관계>

기본적으로 "사상 불순자"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말도 못하고, 친척간에도 그 얘기를 꺼내는 것도, 내가 속상할까봐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지. 나도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없게 되고. 자식도 우혁이 형제간한테도 그 얘기를 하면 묵묵부답을 해버리니까 얘기 꺼내기도 뭣해버리고. 가족끼리도 그렇게 되버리고(최우혁의 아버지).

<염려해주어 멀어진 친척>

수색이모가 전화를 안 해요. 어머니 힘들까봐 전화를 안 해. 70이 넘은 큰 엄마는 일부러 오세요. 친척들이 심적으로 멀지 않고 생신이다 그러면 손주들까지(위원회의 중간 발표: 유골이 발견됐다는 발표) 난 신문보고도 이야기를 못해. 전화를 할까말까 하다가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 ... 우리는 "상황 봐 가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랬는데 새벽에 뉴스 하잖아요. 새벽에는 다 시골에서 새벽뉴스를 보니까 ... 엄마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엄마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야기할 수 없잖아(박태순의 누나).

(3) 가정의 불화와 해체

가족의 의문사 이후 죽음 자체의 충격과 죽음으로 인해 파생되는 정신적 피해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해체되기도 했다. 즉 개종을 함으로써 생긴 가정불화, 정신적 충격으로 빈번한 가출과 휴학, 의문사한 형제에게 생전에 잘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포함한다.

<가족의 방향>

동생이 죽고 나서 막내는 가출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우리 셋째가 그놈이 학교 휴학을 했어요. 가족들한테 감당이 안되죠. 그래서 셋째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만에 졸업을 했어요. 83년에 그렇게 되고, 84년에 휴학을 하고, 1년 후에 또 휴학을 하고. 일단 정신적으로 애들이 많이 방황을 했어요.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나는 제일 맏이니까 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바로 위의 형이나 영현이나 이렇게 의지를 했었는데, 그 버팀목이 없어지니까. 우리 막내만큼은 내가 안쓰러워요. 그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고 아마 84년이면 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밖으로 돌고. 집에 오면 제가 엄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게 만든 거죠. 자기 유년시절에 겪었던 것들이(한영현의 형).

<개종으로 인한 가정불화>

우리 희철이하고 나하고 항상 새벽에 미사를 드리러 갔어. 그런데 희철이가 죽고 부대에서 희철이 유품으로 성경책 하나 달랑 돌아오니까 하느님이 우리 희철이를 죽게 내버려뒀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성당을 만나가게 됐지. 그러다가 돈벌려고 시청에 나갔는데, 그 앞 옷가게에서 내가 바라던 모습의 하느님을 만난 거야. "여호와 증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상심을 ... 희철이 죽고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천주교의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다란 의심을 가진 것이지(한희철의 어머니). 그게 하나이고 또 이 사람이 청각에 문제가 있으니깐 천주교의 미사가 좀 힘들었던 것이지. 아무튼 내가 못나가게 하고 그래도 말 안 듣고. 4년 별

거를 했어. 요즘은 그냥 이해하자 그러고 있지. 이게 가장 큰 내 자신의 피해야(한희철의 아버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해체>

하루는 언니가 저한테 그래요, “오빠 때문에 못살겠어요 ….” 6월 15일(이이동의 사망일)만 오면 오빠가 자기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못해준 거 이런 게 오빠는 괴로운 거예요. … 지금은 가족들하고 헤어졌어요. 3년 전부터예요. 오빠는 전국을 일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나도 오빠가 궁금하지만 쉽게 접근 못하고 … 울케가 힘들다고 해서 이혼한 거예요. 여자 애 둘은 엄마가 데리고 있고, 아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 오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이이동의 누나).

(4) 의도적 망각

대부분의 유족들은 가족들과 가족 구성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있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얘기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가장’(假裝)하고 있는 것으로 의문사 이전의 안정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여기에서의 고통은 남겨진 각각의 구성원들이 의문사자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침묵을 통한 회피>

우리 가족들은 이야기를 안 하지. 그거 얘기하면 뭐해. 동생들하고 아들들하고 이야기도 안 해. 그냥 추모제 때만 되면 “준비만 해라” 그러지. … 아내하고는 그런 이야기하면 뭐해 지금 맨 날 울기만 하는데. 상처주는데 … 가족끼리는 얘기 안 해. 상처 입히는 얘기 할 필요 없다 …(정범영의 아버지).

있지 않고 매년 지내주는 제사와 설날과 추석에 차례 상 마지막에 밥 한 그릇, 술

한 잔 따라주며 다른 형제들 가슴을 껴줄까봐 숨죽여 울며 서로 내색을 안하고 살았다(김두황의 형).

<망각의 유도>

(어머님은) 전혀 얘기 안 하시고, 아버님이 워낙 속 앓이를 하셨으니까 어머님은 내색을 안 하세요. 의문사 진정한지도 모르세요. … 내(여동생)가 동생들하고 얘기해서 살짝 했지 어머니는 모르세요. 확실하게 밝혀지면 가르쳐드리겠지만 … 여지까지 잠잠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노인네 마음이 또 그럴 꺼 아니에요 … 뭔가 결론이 나온 다음에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또 뒤집어 놔 가지고 해결도 안 될 꺼라면 어머니 마음에 또 안 좋잖아요 … 노인네니까 … 어머님이 말을 안 하시고 묵묵히 사세요. 자제 분들 앞에서 울거나 하지도 않고 … 그러니까 어머니는 오빠 이야기는 못하게 하지요. 듣기 싫으니까. 가끔씩 동생들끼리 그런 얘기하면 엄마가 싫으니까 “하지라,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도 하지 마라 … 살아오는 것도 아닌데 ….” 그러니까 부모입장에서는 그러지요 … 하지만 동생들은 그러나요? 입장이 틀린데 …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그러는 거지. 동생들은 생각나면 울기도 하고 그러지요 …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야기조차 꺼내는 게 서로 껄끄럽고 … 진상규명에 관계된 활동같은 것도 할 수 없었고 … 왜냐면 아버님마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또 어머님마저 그렇게 되면 어쩌나 해서 서로 아무 소리도 안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큰 어른들이 안 계시고 다 어린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 식구들이 만나도 무슨 이야기도 안하고 침묵이야 … 침묵 … 좋은 일이 없으니까 그 뒤로부터 … 그렇잖아요? 가장 둘이 없으니까 …(이재호의 처남).

3.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피해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제 내 목숨은 끝나고 형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다.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포기할게 아니라 죽

는 날까지 해보자.” 내가 직접 유서를 써 가지고 다녔어요. 유서를 써 가지고 다니면서 ... (김상원의 동생).

유골은 없다고 추적 60분에서는 말했는데 99년도에 춘천 화장장에서 찾아서 마석에 35만원 보관료 내고 보관중이야 ... 안 찾았던 이유는 자살을 인정할 수 없어서야, 땅에 묻어버리면 포기하는 게 될 거 같아서 포기 못하겠다는 의사표시야(허원근의 아버지).

의문사를 겪은 많은 수의 유족들은 각 기관들이 추정한 사인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위의 사례와 같은 각오로 진상규명을 위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간다. 그러면서 국가나 사회가 유족의 고통에 귀기울이지 않을 때 몇몇의 유족들은 유가협을 구성해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와 개인적인 생활과 사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한 여러 활동,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축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것 하나를 포기하여 다른 차원의 피해를 만들기도 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관계 기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직·간접적인 회유와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일부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노력하다 벽에 부딪히자 진상규명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위해 가족의 생계와 개인적 생활을 포기하며 수십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장에서는 개별적으로 혹은 유가협이라는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관계기관에 의한 피해 i: 개별적인 진상규명 노력 과정에서

유족들은 장례까지 치른 후 가족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벌이기 시

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을 넣고 사례발표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건이 가족의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유족들은 관계기관의 협박·회유, 감시·미행·동향파악을 당하고 민주화운동세력이—유족과 상관없이—의문사를 이슈화시키자 거꾸로 유족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유족들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다시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과 접촉하게 되는데,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협조와 무관심, 냉대로 인한 고통 역시 크다고 한다.

(1) 협박과 회유

유족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의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유족들이 더 이상 적극적인 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유족 전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국가기관의 협박과 회유>

(윤성이가 죽은 지) 1년 있은 후에 성대에서 추모제를 했는데 1주기 때, 84년도에, 시위를 했는데, 이윤성이 죽음을 밝혀라, 모의 장례식도 치르고 엄청난 시위를 했더라구. 그래서 보안부(국군보안사령부: 현 기무사령부)에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장인 장모, 할머니, 큰 처형 부부를 처갓집으로 다 모았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학생들이 시위를 했는데, 월북혐의자를 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가족들이 학생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 앞으로 학생들 만나지 마라.” ...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마석에 가고 했는데 보안대에서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모란공원 납골당에 두었던 것(유골)을 강물에 뿌려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그거랑 처남 물건 다 태워버리고 ... 그래서 자료가 하나도 남지 않았지 ... 괜히 기억 속에 갖고 있다가 뭘 일 나는 게 아닌가 ... (이윤성의 매형).

제가 안기부 안가라는 곳을 3번인가 갔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영현이 죽고 얼마 안돼서 갔어요, 그때는 위로한답시고 위로조로. 두 번째 갔을 때는 국회에서 진상 조사가 있었을 때는 “떠들고 다니지 마시오” 그런 이야기였고. 세 번째 갔었을 때는 반 협박이었죠. 그때 과외를 했는데, “당신 과외가 불법이라는 것 알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거기 가서 위로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회유죠, 달래는 거죠. 두 번째 갔을 때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나온 다음에 갔거든요. 그때는 이런 게 알려져 봐야 당신 집안 피해고. 그 정도 이야기만 했어요. 세 번째 국회에서 진상조사 나오고 그랬을 때는 국회의원 이름들까지 대가면서 “이러면은 당신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다”, 막말로 과외가 불법이라고. ... 87년에는 보안사에 갔었어요. 오라고 그래서요. 경복궁 앞에 가면 병원건물이 있어요. 병원이 보안사 건물이라고 하더라구요. “국가적인 이런 일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것도 먼저 보안사에서 연락이 왔던 건가요?) 그렇죠.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가게 된 거죠. “이건 명백한 국가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명백한 동생 혼자만의 자살이니까 더 이상 떠들고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과외를 못하면 저희 가족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연히 위축이 되고. 그 당시 우리 막내가 중학생이었고, 셋째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제가 벌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팠죠. 권력에 굴종해야 된다는 게(한영현의 형).

<경찰의 회유>

백 형사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아줄까 ... 그래서 내 앞에서 그러면 뺨을 때려준다고 했어(정경식의 어머니).

<가해자의 협박>

내 사건은 시국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만 와. 점잖게 이야기를 해요. “너 신문에 난 것 봤어. 너 잡지에 나온 것 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전화 받으면 “네 목숨이 두 개야? 너네 집구석 다 날려버린다”, 어머니나 집사람이 받

으면 온갖 음담패설을 하고. 받는 여자들은 얼마나 공포심이 들어(김상원의 동생).

<전척을 통한 회유>

면사무소 호적계장이었던 아버지의 8촌 동생이 사건을 더욱 확대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시작하였는데, 언젠가는 집에 아무런 소식이나 연락 없이 아버지를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오자며 산사로 데리고 가서 식구들 모두 행방불명된 것으로 오해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8촌 동생과는 전혀 왕래하지 않는다(정연관 형의 구술 정리).

(2) 감시, 미행, 동향파악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첫 단계는 자신의 사건을 알리는 것이다. 이 처음 활동부터 유족들은—그것이 활발하던 그렇지 않던—관계기관의 감시, 미행, 동향파악을 당했다. 즉 사례발표회장을 원천봉쇄한다든지, 강연장을 급습, 나아가 발표장에 가지 못하게 미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추모미사의 봉쇄>

사건발생 이듬해인 1974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첫 추모미사가 열렸을 때도 정보부에선 유족의 참석을 막았다. 이때 백씨는 골목을 지키고 있는 감시요원들을 피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백화점 쇼핑을 가는 것으로 위장했다. 명동의 백화점 이곳저곳을 한참이나 돌아다니며 행여 있을지 모를 미행을 따돌린 뒤 미사 집전 시각이 임박할 즈음에야 급히 명동성당으로 찾아가 가까스로 미사에 참여했다(최종길의 미망인).

<언론보도의 통제>

최종길 미망인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오버도르퍼(Oberdorfer) 기자가 집을 방문해 남편의 타살의혹에 관해 인터뷰를 요청하던 날,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대문 앞에까지

나와 감시를 하는 상황에서 문조차 열어주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 그 날의 울분과 분노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집 근처의 정신병원(토마스정신과의원)에 입원하기에 이른다(최종길의 아들).

<형사들의 미행>

형사들이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적에 아들이 사춘기를 어렵게 보냈어요. ... 시위나간다고 내가 그러면 싫어해. 며느리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데. 저 나름대로 당하고 나서부터겠지. 장가가고 나서 여편네한테는 말한대. 고3때도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녀서 죽고 싶은 게 많았대요.(장석구의 미망인).

내가 서울 집회에 가는데 뒤가 이상해서 계속 쳐다보니깐, 인천 형사들이 거기까지 쫓아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느그들이 뭔디 날 쫓아 오냐”고. “나는 억울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집회 쫓아 다닌다 ...” 내가 그렇게 퍼부으면 어디로 숨어 버리고 없어(이덕인의 어머니).

<동향파악>

내가 현대에 있던 시절 고대 학생처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차례 찾아와서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 “할 말도 없고 피로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에, “누구누구 아냐? 그 사람이 너희 회사 임원으로 있는 내 친구다” 등 부담스러운 말을 하며 수년간 괴롭힘. 두황이 제사를 맡아주시는 스님에게 찾아와 가족 동향 문의함(김두황의 형).

그 후 두황이가 군에서 죽은 직후 여름철에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찾아 왔는데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번지가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상투적인 인사말을 건네고 “무슨 이상한 일이 없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속내는 우리가 두황이의 죽음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있지는 안는가 하는 점이고 두황이 친구들의 특이한 동태를 알아보

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 해봅니다. “특별한 점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해주고 “당신네들 말대로 본인이 자살했다면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겠느냐”고 말해주고 또 “다시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항의와 저항의 전부였습니다. 안기부 직원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하고 돌아갔고 그후에 전화가 한두번 더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작 생각해 본 것이 전화번호를 바꾸어 아픈 기억을 상기시킬 전화가 오지 않게 기대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김두황의 형).

<사건폭로 막기 위한 통제>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이 어려웠는데 평소에는 전혀 검문이 없었던 곳에서 검문이 이루어졌으며 보안사에서 미행하였다. 그리고 집 주변에서 두 사람이 주야로 감시를 하였고, 어머니가 밭에 일을 하러 갈 때에도 미행을 하였다고 한다. 감시를 받고 있던 어느 겨울날, 추운 날씨 탓에 자동차 안에서 집안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있었는데 계속 히터를 가동하는 바람에 차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 ... 가족들은 10년 가까이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의신 기자들과의 통화 중간에 자주 전화가 끊김으로 해서, 대구에 사는 누나와의 일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정연관 형의 구술 정리).

(3) 비협조와 무관심

유족들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진정을 넣기 시작한다. 관계기관, 행정부, 국회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진정을 넣지만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리고 유족 개인이 벌이는 진상규명 노력을 무시하고 협조해주지 않았음을 느꼈다.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여전히 되도록 사건을 덮고자 성의 업는 수사로 일관한다던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해야할 수사기관이 유족의 요청이나 증언들을 무시한 채 유족이 가해기관으로 여기는 쪽에 기울어져 수사를 함으로 해서 겪는 피해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의문사 유족들은 개별적인 진상규

명 과정에서 어떠한 언론기관도 주목하지 않는 체험을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된다. 유족들은 사회에 알려져 의문사 사건이 공론화되어야 진상규명이 보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언론은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그것은 의문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치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 인해 유족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 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나 혼자'라는 소외감을 느끼며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간직하게 되었다. 비협조로 일관한 관계기관의 태도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이동 아버지와 이재호 아버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였다.

<군의 비협조>

군대를 가겠다고 하길래 별생각없이 보냈는데 사고가 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 뭐가 잘못됐구나, 그때 당시엔 내 아들을 죽인 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보복심리가 있었어요. 사고 나서 가서 보고 부대에다가 내용증명을 했는데 뒤에 가서 만나면 말이 달라지더라구, 가서 말만 하면 ... 사진을 준다고 했는데, 준다고 했는데 사진 못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증명 한거예요(허원근 아버지).

<언론의 무관심>

어머니는 사건이 있었던 때 어떠한 기자도 인터뷰를 청하지 않았던 것들을 억울해하며 의문사 당한 것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한다(우종원 가족).

<국가기관의 무관심, 무성의함>

아버지가 서울 강력계에 재수사 요청했고 진정서 넣었는데 조사를 안해. 서울시경, 강력계 등 2번 넣는데 조사를 안해, 93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 ... 강릉에서 서울로 한 달에 4, 5번은 다녔어요(김성수 어머니).

<국가기관의 무관심>

여기저기 진정도 많이 했으니깐 ... 근데 그런 게 전부다 차단이 되고 답이 안와버리니까 ... 지쳐버린 거지 ... 아버지가 ... 그리고 또 자식 죽은 걸로 막 여기저기 댈

가를 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타니까 맨날 술이나 잠수시키고 ... 약주를 하신 거 하신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폭주를 하신 거예요.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 그러다가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가지고 있던 사진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회사 동료들 사진들을 싹 태워 버리더라요. 그러더니 농약 드시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처가집에 가보면 맨 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 얼마나 그러겠어요. 큰자식인데, 늘 울부짖으면서 나랑 술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 그리고 똑 부러지게 어떻게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 그러니까 ... 그것도 명절 다음날 그러셨어요(자살하셨어요). 명절날 다른 자식들은 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울컥 해버린 거예요(이재호 처남).

<관계기관의 무성의함>

내가 시경에 가서 "나는 김상원이라는 사람 동생인데 왜 결과를 안주냐"고 그랬어요. "보냈다"는 거예요. 서류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구요. 그 사람한테 물어 보더라구요. "보냈냐"고 물어보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우리집에는 안오고. 그러니까 일주일 한 보름기다렸다가 안오면 또 쫓아가고 쫓아가고. 그래서 그 답장을 1년 6개월만에 받았어요. 안보내놓고 보냈다고 그런거야(김상원 동생).

<언론과 사회의 무관심>

이 억울함을 기자들한테 이야기해도 취재를 해줍니까? 안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되겠다. 어느 한 곳에서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데, 차라리 시선을 끌기 위해서 내가 유서를 써놓고 이순신 동상 앞에서 분신을 해버리자. 나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경찰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면 안말아줘요. 내가 우리 이야기를 해주면서 진상규명을 하려는데 방법이 없겠느냐하면 다 안하겠다는 거예요(김상원 동생).

<검사의 비협조>

노인회에서 진정서를 쓰려고 검사를 만나러 갔는데 내가 노인회 할아버지를 데리

고 갔거든. 그랬더니 그 검사가 “아들이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야 ... 나는 쫓아 내버리고 ... 할아버지한테 유도심문을 하고 ... 그래서 내가 (사건 현장의) “오른편에 뭐가 있고 왼편에 뭐가 있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나가라”고만 했어. 그 사람은 옳은 검사가 아니야, 껌씹하기 짝이 없어 ... (정경식 모친).

<국가기관의 무관심>

아버지가 혼자서 진정서를 안낸 곳이 없더라구요. 아버지 어찌됐든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그만두시라는 말도 못하고 ... 건강 생각하시라고 하면 ... 그 상황에서라면 ... 아버지는 희망이 없는 거죠 ... 전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해요 ... (이이동 누나).

<정치권의 외면>

정연관 가족은 자신의 아들과 동생의 진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협력을 얻기 위해 자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공간에 간다고 한다. 정호영 국회의원 창당식에 갔던 것 역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하여, ‘높은 사람’이 된 자신과 같은 문중의 사람의 ‘협력’을 얻고자였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창당식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정연관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리기 시작하였고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를 옆에 있던 아들 역시 들었다. “어떻게 내 어머니가 저런 쌍욕을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자식된 도리로 ...” 그래서 아들은 그 경찰을 구타하였고 파출소로 끌려갔다(정연관 형의 구술 정리).

<언론의 무관심>

인천방송에서 작년에 취재를 했지. 아무 연락도 없다가 취재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나도 집회 다니면서 머리가 텅지. 내가 그랬어, “인천방송 생김지가 얼마나 됐냐”고...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억울한디 이렇게 어마어마 큰일을 이제야 취재를 나왔냐”고 그랬더니 막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고 내가 막 퍼붓었지(이덕인 어머니).

<관계기관의 무성의함>

10월 17일 재조사 진정을 검찰, 청와대에 했다. 98년 2월에 보강조사 없이 종결했다. 나도 부르지 않고 ... 전혀 그런 것 없이 전화도 없었고 이름도 묻지 않았고 ... 사건 났을 적에도 3일만에 종결됐지(김준배 아버지).

<언론의 왜곡 보도>

(합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화가 났으니까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고소장을 합천으로 보낸 거예요. 폭행 혐의로, 학교측이 그랬어요. 부모님 이름으로 ... 만나러 간 것도 자꾸 장례를 하라고 해서 만나러 갔던건데 ... (박동학 누나). 이 사건 이후 경향신문¹⁹⁾, 조선일보²⁰⁾ 등에서 ‘유족이 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또 영남일보는 ‘분신(焚身)은 잘못이다²¹⁾’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박동학의 죽음을 폄하했다(박동학 가족).

2) 관계기관에 의한 피해 2 - 집단적인 진상규명 노력 과정에서

유족들은 개인적인 진상규명 노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 세력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다른 유족과 만나면서 집단적인 진상규명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그리고 이는 유족의 진상규명활동이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의문사건의 그것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을 위한 것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이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나타나는 관계기관과 공권력에 의한 피해는 개별적인 진상규명 노력과정에서 보여졌던 피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구타, 구류, 구속 등을 당한다.

19) “대우공전 학장 등 교수 감금 폭행 - 분신사망유족 등 수사”, 『경향신문』, 1996년 5월 16일

20) “학장 등 교수 감금구타 - 대구공전 학생·분신사망 유족, 얼굴·배 때려”, 『조선일보』, 1996년 5월 16일

21) 『영남일보』, 1996년 5월 8일

(1) 구타

유족들은 이제 거리에서 투쟁하는 삶을 살게 된다. 각종 집회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유족들은 많은 구타를 당했으며, 이것은 심한 욕설을 동반한 인격적 모욕도 수반한다.

<시위 중 구타>

집사람도 고통을 엄청 받았어요. 89년도인가? 전경들한테 곤봉으로 얻어 맞아 가지고. 일주일인가 입원했어요(김상원 동생).

<시위 중 봉고차에 갇혀 구타>

많이 맞았지. 3일까지 몸 치가 나서 못 일어났고 ... 수 차례 마산에서 집회만 나면 민주광장으로 나오라고 하면 가는 거야. 창원에 있는 대학에 집회만 열면 가고 노동자 집회도 가고. 데모만 하면 나를 불렀거든. 그러면 인도에 돌을 깨서 요만하게 만들어 갖고 치마에 싸서 던지라고 날라다주고 ... 한번은 경남대 집회에 갔는데 애들이 맨 앞에 서라고 해서 아들 영정을 앞에 차고 나와서 겁도 없이 길을 점거를 해버린 기라. 그때 애들을 백골단 애들이 교문 안으로 쫓아 넣고 ... 나도 쫓겨 들어갔으면 됐는데 욕을 하고 달려들고. 영정을 뜯어가지고 다시 붙이고 머리에 두른 것도 뺏아가고 ... 조금 있다가 봉고차가 나오는데 넷이 나를 번쩍 들어다가 테리고 봉고차에 태우는 기라 ... 문을 탁 닫고는 시내를 빙기더라는 “이 개같은 년아, 니 자식이 어데서 죽은 지 알아서 학생들 다 뺏구 나와서 ... 개같은 년 ...”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개새끼야. 나는 엄마가 없나.” 했더니 “이 개같은 년 욕하는 거 봐라” 하고 (뒷쪽 허리를 가리키며) 여기를 구두 끝으로 밟아버리는데 온몸이 굳어 버리든만 ...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 모서리에다 두 번을 찍고 가슴을 탁탁 치는데 입으로 피가 툭툭 나오더라구 ... 나도 덩벼들고 머리를 받고 그랬는데 나중엔 손발이 쥐가 나서 뺏어버렸고 ... (정경식 어머니).

<농성 중 시청직원에 의한 구타>

한나라당에서 싸우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자면서 20여 일간 농성을 했었어요. 한번은 전부 식구들을 다 실어 가지고 내가 차 밑에 들어가서 뒹굴고 우리 식구들 내려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다 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인천 시청 앞에서 싸우는데, 나는 그 과정을 써야겠어요. 시청 앞에서 싸우는데 우리 아들 갈갈이 찢은 사진을 내가 목에 걸고 “이렇게 인천 시장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우리 아들 죽였다”고 손 흔들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시청에 와서 그런다고 공권력을 차로 두 차로 풀고 시청직원들을 그것도 업무시간에 공권력 풀었으면 됐제 다 풀어 가지고 나를 가운데로 몰아넣고 지근지근 밟아 붙고 ... 나는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사진을 밧줄로 묶어서 목에 걸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뺏으라고 모가지를 비틀고 ... 내가 너무 억울한 것은 뭐가 억울하냐. 공권력을 푼 것은 푼 것 이제. 시청 직원들을 업무시간에, 시청 경비조차 다 풀어 가지고 이 유족 부모한테 가족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전에 인천방송에서 취재할 때 “그것 좀 내주라” 그랬어요 ... “그렇지 않아도 자식 잃어버린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허구헌 날 그러고 그랬어요. 오직 했으면 우리 큰아들이 분신할라고 시청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지 몸에다 뿌려 가지고 불을 댕겼어요. 그 당시 형사들이 그놈들이 처음에는 진짜 불을 댕길 것인지 그러고 있다가 불을 댕긴 게 어디다(상부에) 전화를 하고, “유족이 분신 자살하려고 그런다”고 보고를 하고 ... 동생을 살려내라고 큰 아들이 분신해서 죽을라고도 했어요(이덕인 어머니).

(2) 연행, 구류, 구속

의문사 유족들이 유가협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농성을 진행한 1988년 이후 자신의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기관과의 싸움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행, 구류, 구속 등의 피해를 당했다. 이 피해사례를 정리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허원근 아버지(현 유가협 의문사지회 회장), 최우혁 아버지(현 유가협 의문사지회 총무), 신호수 아버지의 인터뷰를 청취했다. 이 인터뷰와 유가협 15주

년 기념자료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진상규명노력 과정에서의 연행, 구류, 구속 등의 피해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예로는 1988년 11월 14일 미대사관 폭발물 투척사건 재판을 방청하던 도중 법정소란죄로 정연관 어머니가 구속되었고, 우종원, 정경식, 김성수 어머니가 각각 7~10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또 1989년 7월 5일에는 정경식 어머니가 법정소란죄로 20일간 감치처분을 받았고, 1989년 7월 17일에는 정경식 어머니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마산교도소 수감되었다.

이 외에도 유족들은 민주화운동에 나서면서 반복된 연행(강릉서 경찰서 붙들려 가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 촌사람들은 내랑 말도 안하려구 하고... : 김성수 어머니의 구술에서), 3당합당 당시 항의시위 과정에서 연행되어서 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었던 사건(의자에다 수갑으로 팔뚝을 고정시키고 박종철, 우종원은 고집이 세서 죽었다는 소리도 듣고 ... 그 때 당시에 어머니들이 많이 맞았어요 ... : 허원근 아버지의 구술에서), 1998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가 연행되었던 사건(98년 경찰청에 가서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려 갔는데, 거부하고 강제연행해가지고 해가 질 때서야 네 사람씩 나눠서 경찰서에 넣었고, 그 다음날 죽결로 넘어갔어 ... : 허원근 아버지의 구술에서) 등의 사례를 청취할 수 있었다.

(3) 진상규명 노력이 왜곡인식됨

유족들은 자신들의 진상규명 노력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빨갱이'로 왜곡되어 또 다시 주변부로 밀려나기도 하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다.

<진상규명 노력이 빨갱이로 몰림, 돈을 받고 활동한다고 생각함>

사건 이후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소원해졌는데, 그들은 식구들에게 "빨갱이한테 교육받고 다닌다"고 하며 여러 선거 때 아버지가 참관인을 할 때에도 "빨갱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비난하였다. 그리고 사건진상규명을 위해 돌아다니면 "돈을 많이 받느냐"며 묻기도 한다(정연관 어머니의 구술 정리).

<돈을 받고 활동한다고 생각함>

친구들은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하나"고, 주변에서는 "돈 받고 그러고 다니느냐"고 묻고, 뭐 위자료나 받은 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야(최우혁 아버지).

3) 경제적 피해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길거리로 나서면서 '돈을 길에 뿌렸다'고 말한다. 생계는 뒤로 놓고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면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갔다.

(1) 생계 유지불가능

<진상규명 활동으로 인한 생계 소홀>

그 당시 내가 인장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 맨 날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사람(집사람)과 번갈아 나가고 그랬는데. 맨날 이렇게 조사해야 한다. 저렇게 조사해야 한다. 뭐 어쩐다 하고. 거기 쫓아다니는데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았죠. 내가 벌어들여 생계를 유지해야하니깐 내가 맨날 나갈 수는 없고, 저 사람(한희철 어머니)이 나가야 하는데 청각장애자란 말이야. 그러니 저사람 내보내봐야 얼굴만 나가는 거지. 뭘 알아야지. 그때 한창 유족협의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운동을 하는데 생활에 애를 먹었지. 그렇게 생활한 지 20년이야 20년 거의 20년 다 된거지. 진상을 알아 보기 위해 거기 쫓아다니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지. 직업에 소홀하게 되고(한희철 아버지).

<진상규명 활동으로 인한 생계 소홀>

한가지를 갖고 주욱 살아야 하는데 사업이 주는 거였어. 전기스위치만 올렸다 내리면 전부 바닷물이 돈이 되었는데 완전히 무산되어버렸지.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사고가 나버리니까 정신이 헛갈리니까 사업이 실패되더라 ... 할 일도 줄어들고 ... 이제 먹을만치 농사만 짓는다. 양식은 그만됐다(허원근 아버지).

<진상규명 활동으로 인해 직장생활 포기>

저같은 경우는 우선 직장은 관두고. 직장은 쉬는 날은 다니고 그 다음날 직장에 들어가면은 꼬박 여기에 매달려 있고 직장일에 서울해지고 맨날 빌빌거리고 근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을 관두고 진상규명하러 다니는데 집안 형편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집사람이 가내수공업 같은 데 나가서 일하고. ...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선반이라는 거 알아요? 쇠깎는건데. 동네 가내공업같은 거는 선반깎아 나오는 것, 쇠밥 정리하는 거. 여자들은 쇠밥 정리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돈 천원 더 받으라고 직접 기계를 잡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미용기술을 배워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다.> (김상원 동생)

<진상규명 활동으로 인해 사업 포기>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났어요. 손놓고 다니다가 ... 돈 빌려주신 분이 고발한 채로 하시다가 그런 거죠 ... (이이동 누나).

<가계 파산 및 직장퇴직>

진상규명을 위해 같은 부대에 있었던 동료들을 만나거나 자료를 얻기 위해 형의 퇴직금과 돈을 팔아 만들 돈을 모두 털어 넣게 되었으며, 진상규명활동을 위해 아버지와 형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 후 공업사를 차렸지만 진상규명활동을 위해 자주 가게를 비움으로써 많은 손실을 안고 있다(정연관 형의 구술 정리).

<진상규명을 위한 가계규모 축소>

2년간 여의도 농성한 것만 해도 어디여? 왔다갔다하면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 ... 논이 많이 줄었지 ... 빛 때문에 정리해줘야 하고 ... 활동하면서 빛이 많이 들었어 ... (김준배 아버지).

(2) 사기

경경식 어머니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기도 했는데, 경찰이나 안기부 사람들을 안다고 하며 청탁을 넣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기도 했다.

경찰한테 다시 접수해 가지고 찾아보겠나 했는데 ... 어떤 사람이 “내가 잘 아는 경찰이 있다”, 그러면 아들이 벌어놓은 돈을 100만원 주고 “힘을 써달라” 그러고 주는거야. 그때 어떤 돈이 있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땅 팔아 가지고 모은 것이 천만원이 있었고 아들이 모은 게 있고 해서 2천만원이 있었거든. 아들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도 안하는 것들이 달라 들어도 다 돈을 주고 그랬어. 한번은 안기부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자료를 빼놓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50만원 줬어요(정경식 어머니).

4) 육체적·정신적 피해

(1) 육체적 피해

유족들은 진상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모든 것을 쏟으면서 건강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냉대로, 의문사로 잃은 가족을 떠올리면서 생기는 정신적 충격으로 식사도 제때에 하지 못하는 등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병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위장병>

내가 지금까지 위내시경을 14번 정도를 하고 장내시경을 6번. 신경성 위장병을 얻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진상규명을 하러 다니면 낮에는 속상하니까 밥 때 되면 밥을 먹지 않고 굶고 다녀요. 목격자 찾으러 다니고 증거 찾으러 다니고 경찰서 다니고 ... 점심 굶고 돈 아끼려고 걸어다니고 저녁이 되면 집에 와야 하니까 오다가 화도 나고 배도 고프면 포장마차에 들어서 소주 한병 시켜 놓고 안주 없이 ... (김상원 동생).

<신경성 질병>

할머니(간질, 신경통, 혈압)도 몸이 아프시고, 남편도 옛날부터 다쳐서 몸이 아프고 ... 우리 (큰) 아들도 술 먹으면 안좋은 증세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신경을 많이 쓰니 ... 내가 할머니 수발도 들고 내가 돈도 벌고 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해야되는데 ... 거기다가 정부나 회사나 아들놈이 없어졌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싸니까 너무 신경이 쓸 일이 생겨가지고 ... 지금 남은 식구가 그런 식구가 아니라 신경이 쓰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병이 자연적으로, 잠을 잘 적엔 잘 자고 못 잘 땀 못 자고 그러니까 신경성이다 신경성이다 ... 물건을 팔고도 돈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물건을 두고도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 자꾸 나한테 득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거야 ... (정경식 어머니).

<화병>

좌우지간에 그 험한 날을 내가 동서남북 싸우러 다니고 울고 다니고 좌우지간 내가 날마다 시청 앞에 가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울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울고 ... 좌우지간에 내가 너무너무 지쳐 가지고요. 그 화병이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붙었어. 인자는 그 화병을 고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진상규명을 할라고 유가협에 들어 가지고 여의도가서 천막 쳐놓고 싸우고, 그 뒤로 여하튼 ... 출상을 하고 나서도 계속 같이 싸우고 다녔어요.(이덕인 어머니).

(2) 정신적 피해

① 불안, 공포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은 수사·관계기관의 교묘한 협박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개별적으로 진상규명을 하였던 유족들이 유가협이라는 단체로 묶임으로써 완화되었다. 그것은 유가협에 가입한 유족들은 수사·관계기관들이 감히 드러내어 자신들을 협박할 수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진상규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공포는 개별적으로 진상규명 노력을 하는 유족들에게 집중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보복에 대한 공포>

나는 전철을 탈 때 노란선 가까이는 가지도 않아요. 지금도 노란선 가까이 가면은 내가 뒤돌아보는 습관이 있는데. 나는 전철을 타려고 할 때 항상 중간에 서요. 갑자기 어떤 놈이 와서 밀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 공포심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경찰이 미행하고 협박하고, "죽여버린다"고 "니네 가족 몰살시켜버린다"고 그러고. "니 목숨이 몇 개 있는지 아냐"고. 지금도 그 사람들 "나 죽여버리고 싶다"는데. 지금도 진상규명위원회에 와서 진술하러 와서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랬다는데(김상원 동생).

② 자책감

유족들은 자신들이 과거 - 사건이 발생할 당시부터 장례를 치를 때까지 - 에 뭔가를 보다 철저히 처리했다면 지금은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자식이나 형제자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다.

<증거자료를 없애버린 것에 대한 자책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될꺼라는 걸 알았다면 그때 자료를 다 모아두고 하나도 안 버렸겠죠. 근데 잊으려고 다 버렸으니까 ... 해마다 정리하고 뒀다가도 버려버리고 잊으려고 ... 이제 와서 후회하죠.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 노조 활동하는 사진은 아니어도 회사다니는 동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다 버려버리고 없으니까 ... 잊을라구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태워버렸거든요 ... (이재호 처남).

<혼자의 힘으로는 진상을 밝힐 수 없다는 자책감>

내가 산에 다녔는데, 내가 유골 뿌린데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형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형! 내 몸이 말이 아니라”고. 형 원한 못풀어 주겠다”고. “형 생각은 어떻냐” 고요. 젊은 놈이 앉아서 구시렁구시렁 하고 있으니. 내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피해가고(김상원 동생).

<증거물을 없애버린 것에 대한 자책감>

그 당시에 증거물로 병영수첩 두 권이 있는데 고거라도 보관해 놔둬야 하는데. 안경, 모자. 매장하고 나서 다 태워버려 가지고. 한 달도 안되었는데 다 태워버려 가지고(최우혁 아버지).

5) 가정교육의 문제

이는 진상규명을 활발히 하는 유족이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나타나는 피해이다. 이들 유족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의문사를 당한 유족의 일원으로 국가 기관의 공공성을 교육시키기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었고, 진상규명 노력에 온 힘을 쏟아 붓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감정적 유대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 소홀하게 된 점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자녀 방치>

어렸을 때 내가 그 일 때문에 맨 날 바깥에 나가있으니까 ... 집에 오면 구석에 하나는 처박혀서 오그려 자고 있고 ... 한 놈은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자고 ... (장석구 미망인).

<자녀의 고립감>

남동생은 그 촌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 “불편하지. 성은아, 힘들지” 하면 “아뇨,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게 중학교에 갔는데. 눈비가 오면 산을 못 넘어와. 내가 우산 들고 마중 나가고. ... 엄마가 집에 있나 맨날 돌아다니지, 그러면 할머니가 저거 미친년이라고 하면, 성은이가 “엄마 야단치지 말아요. 욕하지 말아요. 남의 일 아니라 우리 일이에요.” (그랬네요) “저 새끼가 그래도 철이 다 들었어야”. 할머니가 그러더라구 ... (김성수 어머니).

<인격형성의 문제, 감정적 유대 유지 어려움>

유가협 부모님들이 맨날 전경들하고 싸우고 엄마, 아빠가 전경들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경찰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나한테 물어 보는거야. “경찰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물어 보는거야, 초등학교 3학년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경찰은 좋은 사람이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나쁜 사람 있으면 잡아주고, 너네들 보호해줄려고 경찰은 있는거다”. (그리고 나니 아이가 다시) “근데 왜 큰아빠 죽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패는데? 경찰이 왜 좋냐?” 이거야. 내가 할 말이 없는거야. 애들한테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인격형성을 하고 그럴 나이에 부모가 잘 해주지 못했으니까. 부모의 사랑도 잘 못받고. 나는 항상 집에 오면은 내 몸 자체가 피곤해 죽겠으니까. 큰애가 어린 나이에 아빠만 보면 무서워했어요. 도망가고. 애들이 나한테 울려고 그러면 내가 막 짜증내고 ... (김상원 동생).

<일탈>

여동생은 잘 못 돌봐서 상고졸업 했지. 뺨떨어나가기도 했어. 용권이 아빠, 삼촌, 오빠 노릇 다 하면서 사랑해줬는데 충격받았지. 나는 집도 내몰라라 밥도 내몰라라 하고 다니지. 그러니까 지는 한창 사춘기인데 벗어나는거야. 술집 같은 데까지 들어갔어. 지 오빠가 그걸 찾으러가고 설득시키고 했지(김용권 어머니).

6) 가해자가 '불처벌'됨으로써 나타나는 고통

유족들은 종종 삶의 현장에서 가해자 그룹이 처벌되지 않아 계속 맞닥뜨리는 상황을 접한다. 여기서 가해자 그룹은 직접적 살인을 한 가해자만이 아니라 간접적 가해자 즉 가해와 관련된 기관, 목격자를 했으나 증언을 하지 않는 사람, 사건 발생 당시 최고권력자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모호한 가해자 집단을 상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이렇게 의문사한 자신의 가족의 죽음과 관련되었다고 의식하는 사람, 기관과 직접 부딪치는 경험은 물론이고 그들과 한 하늘 아래서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고통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고통은 바로 유족의 진상규명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갖게 만들며, 유족들이 관계기관 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기한 사회와 국가와의 진정한 화해를 방해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일조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가해자에 대한 분노>

우리 남민전 사건 있잖아요. 그 검사가 박철언이예요. (홍분하며) 그 놈이 제일 악질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그게 노태우 때 왕자가 된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이재문 미망인).

<외면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호로병에 간헐 마귀 ... 열어주면 '가만히 안봐들거야' 하다는 그 얘기있죠. 내 입장이 그런 입장이예요. "너도 당해봐야 알아." 진실을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준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너도 당해봐야 알아 ... 맞아봐야 알아 ..." (이운성 매형).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그놈들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했어요. 이제 와서 하나씩 밝혀지면 저희는 분하죠. 가슴에서 뜨거운 게 치밀고. 그건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법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두환 찾아가서 똑같이 죽이고 싶은 게 제 심정이예요 (한형현 형).

<진상규명에 아직도 협조하지 않는 가해자>

김00이가 그때 경위 그런디 지금 말바우시장 있는데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를 간다고 해서 담당피디하고 집 찾아갔어. 그런디, "취재를 안해준다"고 그러는 것이여. 나는 있다가 나와 부렸어. 그 피디만 혼자 몰래카메라로 찍을라고 그러는디 대고 소리를 치는거야. "밝히지도 못할 것들이 그런디"고 말이여. 저는 다알제. "그런디 밝히도 못할 것들이 그런디"고 아조 성질을 내더라고 (이철규 아버지).

<진상규명 과정에서 항상 맞닥뜨려야 하는 가해자집단>

아주 나쁜 놈 새끼들이 경찰들 새끼들이여. 나는 우리아들 죽고 경찰들이 나쁘다는 것을 너무너무 알아 가지고. 지금은 어딜 가도 경찰이 옆에 방망이만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내 심장이 벌벌떨렁거려. 저런 방망이로 얼마나 우리 아들을 때렸을까 하고 ... (이덕인 어머니).

<진상규명과정에서 마주치는 가해자>

인천방송에서 취재하러 남부경찰서를 갔는데, 그때 당시 “고깃덩어리 실어”라고 말하고 복부를 찔던 형사를 본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당신이 그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놈이 낄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취재하다가 그 형사 새끼가 그런 거야, “우리 큰아들도 맞아 죽어야 한다”고.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라고 ... (이덕인 어머니).

<고백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양심선언한 후배는 양심선언하기 전에 한번도 보지 못했어. 준비는 잠 잘 곳을 찾으면 고층건물에는 안간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준비를 그리 몬 게 아니냐. 영안실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막 울더라구 ... “니가 돈 3000만원밖에 안 되냐 ...” 그래서 눈을 떴어. 나중에 보니까 돈 받고 프락치를 한거라구 ... 정말로 다리가 떨어져 양심선언장을 못들어갔어. 다리가 떨리더라구 ... 10미터 거리에 앉아서 고개를 쳐박고 있길래 “고개를 들어라. 아버지 묻는 대로 답변을 하면 다 용서해준다” (그랬는데) “정윤기 검사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것만 답변을 안하더라구. 불쌍해가지고 ... 자식은 그렇게 되지만 불쌍해가지고 두들겨주면서 “그래 잘했다” 그랬지 ... 지금까지 정윤기 검사가 떳떳이 못나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고 ... 이00(경찰, 가해자)이는 스스로 “불안한 심정으로 못살겠다” 그런데 ... 양심껏 하라구 ... (그럼) 용서하리라고 ... (하지만 고백) 못하지 ... (이00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 경찰서 옆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고개 저으며) 만나기 싫어요. 내 발로 걸어가지는 못하지 ... 저 발로 걸어와야지 ... 이미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 이미 선언했어. 지가 나와서 선언한다면 자식처럼 용서해주겠지만 ... 정윤기 검사도 그렇고 ... 하지만 이제 끝났지 ... (김준배 아버지).

7) 국가에 대한 불신

내가 피해본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거지. 이렇게 더러운 나라가 있느냐, 무엇을 얻

을 것이 있냐 말이죠. 나라 잘 되길 바랬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놓는 국가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차라리 자살이라고 믿으면 낫지(허원근 아버지).

유족들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불신을 점점 쌓아갔다. 유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믿고 따라오던 국가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한국 땅을 등지기도 하고 국가기관을 믿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유족들은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을 큰 피해로 꼽았다.

<이민>

저희집의 막내 여동생은 아버지를 기억을 못하죠.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죠. 자라면서 아버지가 안계시니까 자유분방하게 컸어요.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 사건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개는 “한국에서 못살겠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미국에 있어요(김창수 아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이 때까지 당해와서 ...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캐려는 식으로 조사해서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도 싫어. 그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반항하고 그랬는데 ... “뭘 꾸미려고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해왔지. “잇을만 하면 물어서 뭐하러 하나”고. “나는 이야기하기 싫다”구 말도 안하고 그랬다구. “난 모른다구, 잊어버렸다”구. “나한테 무슨 조사를 하려고 그러냐”구. “말 하나 잘못하면 내 말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도우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돕기는 누가 도와요” 하두 당했으니까 누가 뭘 말을 해도 내 가족 아닌 다음에는 누가 우리를 뭇 때문에 뭘 도와주느냐, 믿지 않았고 ... 말해봤자 괴롭기만 하더라구 (장석구 미망인).

<정권에 대한 불신>

대통령 바뀔 때마다 진정을 했죠. 전두환 때랑, 노태우 때랑. 청와대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군에서도 왔었어요. 그런 건 이미 거절을 했죠. 똑같은 놈들이 해봐야 똑같은 결론 밖에 더 나오겠느냐하고(한영현 형).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농성을 할 때 너무 몰랐는데 ... 전경이 가로막으면 싸움하면 해결될 줄 알았어. 어머니들 거의 그랬지 ... 전경이 물러서야 어머니들이 물러섰다 ... 무전기도 몇 개는 부수고, 곤봉도, 방패도, 최루탄도 뺏아 왔어. 많이 싸우면 기쁘고 많이 안 싸우면 슬퍼했지 ... 그러나 자료가 있는데도 사실을 인정도 안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국가기관인 헌병대에서, 보안대에서 육군범죄조사단에서 특조단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 (허원근 아버지).

<정치권에 대한 불신>

아들 일도 너무 오래 끌고 그러니까. 정부서 이 일로 해가지고 풀려고 해야 풀릴 텐데 ... 즈그 정치한테 정권이나 와야 하는데, 그런 거만 생각하고 우리 사건은 신경을 덜 쓰는 거 같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 (정경식 어머니).

<군에 대한 불신>

가령 국가가 내 동생이 자살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내 자식도 아들이란 말이예요. 둘째도, 셋째도 맘놓고 군대를 보낼 수 있어야 ... 동생이 이렇게 됐을 때 내 자식이 군대간다고 하면 난 군대 앞에 진을 치고 있어야 해요. 군대리는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동생이야기만 나오면 ... 사회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항상 군대라는 수식어가 다니잖아요. 나 이민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큰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이란다 “이 아이는 군대안가도 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구요. 내가 어딘가 모르게 군대라는 곳을 회피하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은연 중에 군대 보내면 못 보게 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 아버지도 경제적 파탄이라면

이거냈을 텐데 ... 마지막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건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이이동 누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육군본부에서 했다고 통보는 오더라고. 10번하나 100번하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쳐다보기만 하고 고대로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지. 첫째는 군대라는 게 은폐조작이라는 게 관례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88년도에 5공 청문회할 때 평민당 인권위원장 조OO 변호사라고 헌법재판관까지 했지. 그 양반이 평민당 인권위원장이어서 국방부에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왔는데 80년에서 88년까지 군에서 죽은 사람이 육천 칠백 몇십 명인데 그 중에 자살자가 이천 오 백 몇십 명이라는거야. 자살자가 완전히 없다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이천 오 백 몇 명이 그냥 죽는다는 게, 자살한다는 게 말이 안돼. 군의문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피해 사례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전부다 물론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조사한 적이 없어.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칼자국이 없나.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칼자국이 있을 리가 없잖아. 별 게 다 있어(최우혁 아버지).

4. 유족들의 바람

여기서는 유족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그들의 바람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유족들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했다. 그 죽음에 덧씌워진 ‘자살’이라는 굴레가 벗겨지기를 원했고, 명예가 회복되어 역사 속에 교훈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었다.

1) 진상규명

(1) 철저한 진상규명

이런 게 사실로 밝혀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나가서 몇 번 주장을 하지만 이런 건 사법적 판단이 아니거든요. 인권적 판단을 해야돼요. 왜? 사법적 판단은 반드시 증거로 결론을 내야합니다. 정상적인 사건일지라도 반드시 증거가 확보되어야하는데 이런 건 다 있는 증거를 다 인멸을 시켜버리고 조작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20년 30년 된 사건을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법적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증거만 찾아 가지고 물증을 대라대라 그러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는 것도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만,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유족이 정말로 명예회복을 해야하거든요.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의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라고 결론을 내야하는 건데, 이런 건 물증이 아닌 정황증거에 의해서 모든 정황이 그렇게 간다면 인권적 판단을 해줘야하는 거예요. 사법적 판단을 하지 말고(김창수 아들).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지금 대통령은 한땀한 거 있잖아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목숨은 다 똑같지요. 똑똑하나 안 똑똑하나 부모한테는 자식목숨은 다 소중한 거거든요. 이 한을 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자살은 아니예요. 나는 충을 맞아도 자살이 아니라고(외칠꺼예요). 나 자살이 아니다아(언성을 높임) 그 자리는 자살을 한 자리가 아니고...(정경식 어머니).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정부측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다 발휘해서 끝까지 밝혀내서 유족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또 꺼내서 다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이재호 처남).

(2) 조사의 철저한 공개

지금까지 한 기록을 그대로 발표해라. 보고서에... 그것만했으면 제일 좋겠다... 더 진상을 규명 못할 바에는 애는 이런이런 일로 해서 사상이 커서 여기와서 죽었다.

검은, 어두운 역사가 독재정부가 죽었다는 것만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보상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 조사한 그대로 역사의 물건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꺾고망게 한 줄 났텐데, 그러면 진실이 가려질 수도 있고 진실이 진실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 파악했으니까 조사한대로 그대로만 이야기해라. 다는 모르지만 조사한 그대로 자료집이 나오면 좋겠다 이거야(정법영 아버지).

(3) 가해자, 목격자의 조사협조, 양심선언

진상규명 그것 좀 양심선언이라도 돼서 억울하게 죽은 자살이네 뭐네 밝혀졌으면... 어떤 놈한테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밝혔으면 좋겠어...(문승필 어머니).

경찰들은 아무리 의문사 진상규명 이런 거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세계관은 세계관 인가봐 절대 안부는 걸 보니. 그러니, 시일이 오래 되면 불수도 있어도 시일이 오래 안되면 불 수가 없는가봐. 그러니까 공권력들은 비밀을 지키라고 내부에서 그런가봐... 이게 민간이었으면 10년정도 되었으니 진작 불어 붙었을 텐디(이덕인 어머니).

(4) 대국민홍보를 통한 제보받기

근데 계속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준다' 그러는 데, 솔직히 국민이 의문사가 뭔지 또 의문사의 대상이 어떤 죽음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 자체를 모르는데 뭘 신고하겠어요, 국민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말로 의문사를 밝혀내려고 한다면 국민한테 홍보를 해라. 돈이 예산이 없으면 일간지 신문에 협조를 구해서 아버지 사건같은 아버지 이름 김자창자수자만 적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진도 거기다 넣고. 그거를 일간지 신문에다 전부다, 일간지 신문이 좋은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뛰워주고. 또 방송사도, 요즘 방송매체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신창원 사건 같은 것도 보면 전부다 국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사건의 실마리가 다 나온거

예요 (김창수 아들).

2) 명예회복 및 의문사 사건의 역사화

<명예회복>

지금도 우리 선산에 가보면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선산이 있는데 지금도 아버지를 선산에 안 모셔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지 아버지가 선산에 계시냐. 아버지는 국립묘지에 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첫째는 아버지가 불의하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이 떳떳하게 밝혀져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 명예가 회복되는 거거든요(김창수 아들).

<명예회복, 보상 및 역사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데 뭐하러 하느냐 ...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하나도 이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이 없잖아. 없어 ...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 따라다니면 다 망하고 집안 조지는데 ... 독립운동한 사람에게 그건 역사가 청산되면서 위대한 지도자다, 위대한 민족의 열사다 ... 이렇게 해주면 ... 정부가 제대로 해줬으면 지금 독립운동한 유족들이 후회하겠나. 마지못해 몇 십 만원씩 주면서 단칸방에서 살다가 노인네들 죽는 것이 하나들이나 말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권도 부정한 정권이 되는거다 ... 그건 정부의 몫이니까, 위대한 사람으로서 열사로서 인정을 해주고, 민주동산으로 전부 이전하구. 그러면 정부가 빛나는 거야. 그것도 못하면서 돈이 없으니 따지지 말라 이거야. 돈의 적고 큼의 문제가 아니니까 ... 정부의 몫이니까 핑계대지 말고 해라 이거야. 그리고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민주동산이든, 애네들의 모든 것이 그곳에 남도록. 역사자료실로 사실대로 보관하는 거다. 박정희 기념관 세울려고 하지 말구 ... (정법영 아버지).

<명예회복>

제 동생이 국가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도 국가유공자 아님니까, 내 동생 연락을 받고 가서 그랬어요. “내 동생도 국립묘지에 가는 겁니까” 그랬어요. 못간다. 왜 못가냐? 정말로 내 동생뿐만이 아니고 그런 죽음이 모여서 모여서 이런 민주주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 우스개 소리로 보상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내 동생은 몇 백 억을 준다고 해도 아까운 놈이에요. 정말 그 놈이 살아있었으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을텐데. 아까운 놈들이 죽었더라구요, 보면(한영현 형).

<명예회복>

정부에 바라는 것은 우리 애들 명예회복 시켜주고 죽음 ... 그거 밝혀주고 그러는 거지 보상은 나중문제이고 ... 확실하게 명예회복하게 하고 ... 헛되지 않게 ... (김성수 어머니).

<교과서 수록>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애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을 교과서에 실렸으면 한다는 말까지 했었지. 유서도 사실 부모에게 남긴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남긴 것이지(한희철 아버지).

3) 재발방지 노력

<군, 경찰,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합리화>

저는 국가한테 금전적 보상 바라지 않아요 ... 내 아이를 군대 보냈을 때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어요(이이동 누나).

<과거청산 기구의 상실화>

또 이런 건 열어 놓는 거야. 언젠가 시대가 바뀌면서 십 년 후도 좋고 50년 후도 좋고, 때론 100년 후라도 내가 죽인 사람이 나오면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던지. 시한을 정해놓고 하지 마라. 반민중적 반민주적 행동을 한 사람은 100년이 넘어도 처벌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 놔라. 독일처럼 ... (정법영 아버지).

4) 유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물질적으로도 문제거든.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따러. 지정병원이라도 있어서 치료 받을 수 있게 병원이라도 하나 해주면 좋지. 유가협 엄마들 몸에 명이 들어있는 거야. 형편이 좋은 부모 없거든. 잘 살고 형편좋은 부모들 몇 안돼. 의료시설 되어 있으면 좋지. 약을 달달이 두 군데 먹거든. 두 군데 병원 다녀야 해. 의료보험을 해도 비싼 약이 있어. 나보다 더 어려운 부모들도 있을 거 아냐. 병명도 확실하지 않는데 여기 저기 아프니까. 다 똑같은(문승필 어머니).

5. 소결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을 접한 후부터 그 사건의 초동 수사에서, 부검과 장례가 치루어지는 과정까지 관계기관에 의한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건의 은폐·축소를 위한 시도, 유족에 대한 회유와 협박, 감시와 통제, 일방적인 부검과 장례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족들은 이 죽음이 단순 변사사건이 아니라는 강력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변사사건'이 '의문사'로 전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 가족구성원이 죽음을 당한 후 유족들은 불명예스러운 '자살'이라는 사인으로 인해 또는 '빨갱이'여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해 '낙인'이 찍혀 국가와

사회, 이웃으로부터 고립을 당했으며, 심대한 경제적,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또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원해졌다. 특히 정신적 피해는 치료를 요할 만큼 심했으며, 유족들의 나이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육체적 피해와 결합되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유족들은 가족구성원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개별적 집단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건 발생 초기 유족은 개별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관계기관에 의해 협박·회유, 감시·미행·동향파악을 당하고 특히나 무관심과 비협조의 냉대 속에 괴로워 자살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개별적 노력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유족들은 유가협을 구성해 진상규명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가족구성원을 죽음으로 몰아간 관계기관과의 투쟁을 벌였고 당시 한국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결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무수한 구타, 연행·구류·구속 등의 고초를 당하는 한편, 이런 활동이 '빨갱이'로 '돈을 받고 하는 활동'으로 왜곡 인식 되기도 하였다.

이런 개별적·집단적 진상규명노력 과정에서 유족들은 경제적,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특히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유족들의 힘만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가운데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상당히 심대했으며, 살아있는 다른 자녀들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유족들은 이렇게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가운데 아직도 처벌되지 않은 채 더욱 높은 사회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가해자(집단)를 통해 국가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무기력감을 느꼈다고 한다. 국민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 국가, 변하는 모습이 없는 관계기관, 버젓이 고개를 들고 다니는 가해자들로 인해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을 쌓아갔다.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연구자들은 유족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의문사 사건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술자들은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힘들어했고 침묵하기도 했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연구자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심각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자신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고통이라고 치부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배상과 어루만짐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III. 결 론

1. 진상규명을 위한 환경 조성: 가해자(집단)의 고백과 증언의 필요성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온 의문사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매우 명확하고 단순하다. 우선 유족이 바라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 형제, 자녀들의 죽음이 더 이상 원인불명인 상태로 오명을 쓴 채 남겨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가해자의 증언과 사과이다. 부모나 형제, 자녀의 의문사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은 유족은 이들 가해자의 가해사실에 대해 처벌보다는 공식사과를 바라고 있다. 물론 분명한 가해주체를 가려줄 것을 기대하는 유족도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오랜 투쟁에 지친 유족들은 보복적 성격의 가해자 처벌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유족들은 가해자도 본질적으로는 국가폭력의 구조상에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일종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이에 국가는 가해자가 직접 자신을 드러내고 피해 유족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조사권한은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다가 간혹 가해자(집단)이 드러나더라도 의문사관련 증언자에 대한 보호나 신변안전을 보장할만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가해자 혹은 사건 관련자의 자발적 조사협조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이란 사회가 가해자로 하여금 얼마나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참회하게끔 만드는가에 좌우된다. 즉 보복성의 처벌을 지양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왜곡된 진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그에 얽힌 도덕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국가기관의 권력을 명분으로 한 폭력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뒤늦게나마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의문사는 사건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당시 사건의 관련자, 목격자의 증언이야말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게 됨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작업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신문 등 언론기관을 통한 대국민홍보를 통해 새로운 증언자를 찾아내는 것 등이 그러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사건관련자와 목격자가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그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진상규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유가족들을 의문사에 의한 죽음에 대한 낙인과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2) 이러한 유족들의 인식 역시 장기간 의문사에 대한 고통을 내면적으로 삭힌 결과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유족들의 피해상황과 요구사항들을 정리, 점검할 때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요구되는 것은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피해유족 대다수가 의문사 사건 자체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짧은 희망과 기대, 긴 실의(失意)를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이런 충격이 정신과 육체를 모두 병들게 했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빌리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바이다. 더군다나 오랜 진상규명과정에서의 끊임없는 감시, 사실은폐와 왜곡과정을 통한 스트레스는 사건 당시부터 위원회가 활동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가 조사하고 그 사실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과정 자체도 피해 유족들에겐 그 때 당시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있다.

아직도 수면장애를 겪고 매일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간신히 잠드는 생활을 유지하는 유족들이 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만큼 고통을 받았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유족들도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원인을 누가 어떻게 제공했는가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다시 한번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어렵사리 받은 정신과 치료조차 아무 소용이 없고,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이윤성의 어머니 등)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유족도 있다. 이들은 노력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당뇨, 심장관련 질환 등-에 시달리며 그 치료비를 개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런 유족들의 현실은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단순한 의료카드의 발급이 아니라 육체적 질환과 정신질환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치료와 건강상의 재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선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족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유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관한 전문적 의료인들의 연구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집단을 구성하고 그 연구

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될 것이다.

3.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접근하기 쉬운 법률서비스의 제공

유족들은 대체로 사건을 접하고 나서 슬픔과 당혹감과 함께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절차, 법적 대응방법 등에 대한 무지로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적 서비스(정보공개, 전문 변호인단의 구성, 집단 구제 등)를 마련하고 각 종 피해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구제메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유족들에게 공소시효 적용의 문제는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가해자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관건이 되기에 민감한 사안이다. 국가는 인권침해에 관한 국제법수준에 상응하는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폭력 일반 및 국가폭력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제한을 두지 않게 되어 있다.²³⁾ 국제법 수준의 공소시효 적용은 지속적인 진상규명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4. 경제적 피해에 대한 재할 관점의 국가배상

유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다. 우선 직접적인 손실로 기대소득자·

23) 1968년 유엔총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물론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조시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효문제,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 국제법의 흐름과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주최 인권토론회 자료집, 1999

가계부양자의 사망으로 최소한의 가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들 수 있다. 또한 진상규명 활동은 오랫동안 개별 유족의 경제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가정경제의 규모 축소나 생계활동의 지장을 초래했다. 더구나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미행,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있어 곤란을 겪어왔다. 이는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제한했다. 예를 들어 유족의 자녀교육에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은 미래에 대한 경제적 기대조차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는 유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원상회복의 관점에서, 이를테면 교육비가 지원되는 취업교육 등 각종 재활프로그램까지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사과'와 재발방지책 그리고 인권교육

유족이 상실한 지위와 피해에 대해 국가가 광범위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제도적인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인정'한 사건에 한해서라도 가해자로 밝혀진 관련기구가 사과성명,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 개선된 내용 등을 유족과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 일례가 될 것이다.

또 의문사와 그 유족들의 고통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공안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6. 명예회복과 의문사에 대한 역사적 재정립

어떤 유족(정법영의 아버지)은 위원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여태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자료를 가공하지 않은 그 자체로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다. 위원회가 획득한 모든 자료의 공개를 통해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 명예회복을 바란다.

유족은 의문사 피해자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위치와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화 작업을 진행시키길 요구한다. 이를 위해 유가족의 경험을 기록화하고 역사화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민간중심의 묘역과 추모공원, 역사자료관을 조성하여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힘써야 한다. 덧붙여 국가기관이 발간하는 교육자료나 역사교과서에 내용을 수록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역사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재정립을 위한 작업은 명예회복과 의문사의 재발 방지의 기반이 된다.

7. 국가와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의 해소

국가기관을 등에 업은 장기간 지속된 은폐과정은 직접 가해자 외 간접가해자(집단)의 범주를 확대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의문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주체는 국가로 귀결되었다. 결국 오랜 시간동안 유가족이 경함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은 증폭되었다.

이런 불신은 특히 군 의문사 피해 유족들에게 두드러진다. 이들은 군의문사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잃었고 때문에 군대 내부의 비공개적인 사안 처리에 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군의문사로 인해 유족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의문을 표시하며 어떻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마음놓고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한다. 군이나 경찰의 초동수사에 있어 유족이 선택한 민간 부검의, 전문 참관인 등의 부검과정의 참여 등 간단한 개선을 통해서도 의문사 수사과정에 있어 많은 의혹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유족들은 군대라는 조직 자체의 합리화, 투명한 행정, 인권교육

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족의 일부는 의문사의 처리과정, 상황, 의미 등 기존의 불합리한 군 내부의 사건들을 역사화하고 이것을 통해 군 내부의 인권 의식을 정훈교육을 통해 배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군 합리화에 대한 이런 유족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군에 대한 진정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군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리화가 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상의 불합리함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유족들의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우리사회를 재통합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례 외(2001), “제주 4·3의 경험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제34권 1호
- 반영진 외(1989), “자살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예비적 조사”, 『신경정신의학』, 제28권 1호
- 변주나(1995), “화병, 1992년 LA폭동의 정치·경제적 공모와 한국계 미국인 피해자들의 속죄양 증후군”, 『재외한인연구』, 제5집
- _____(1996), “광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15년 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9권 2호
- _____(2000), “15년 후 심신 충격”, 『치유되지 않은 5월: 20년 후 광주민중항쟁 피해자 실상 및 대책』, 다혜
- 신승철 외(1990), “한국인의 자살 (1965-1988)”, 『신경정신의학』, 제29권 4호
- 심영희(2000), “침묵에서 증언으로: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3권 2호
- 유철인 외(1996), “해방이후 충남 서산지역의 지방사: 역사적 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한국문화인류학』, 제29권 1호
- 윤택림(1994),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
- 이은주 외(1980), “한국인의 자살에 관한 태도: 의과대학생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제19권 1호
- 이효재(199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까치
- 장경섭(1996), “가족과 사회구조”, 한민 한완상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사회학1』, 민음사

장수현(2001), “중국내 북한 난민의 사회적 고통: 한계적 상황과 오점 만들기”, 『한국문화인류학』, 제34권 2호

전우택(2002), “인간의 고통과 의료의 본질”, 『의료의 문화사회학』, 몸과 마음

조문영(2001), “‘가난의 문화’ 만들기: 빈민지역에서 ‘가난’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조시현(1999),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국제법의 흐름과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주최 인권토론회 자료집』

조현연(1999), “‘의문사’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진상규명의 정당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한인섭(1999),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과 그 구제방법: 의문사와 시효 문제를 중심으로”,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모색,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함한희(2000), “구술사와 문화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33권 1호

Boven, Theo van(1988), *Compens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draft resolution*, Geneva: UN

Gannage, M.(1998),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 Review and Analysis of Approaches to Addressing Past Institutional or Systemic Abuse in Selected Countries* prepared for LAW COMMISSION OF CANADA.

van Gennep, A., 전경수 역(1985),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Goffmann, E.(1968),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London: Penguin Books